

“으랏차차” 영암군민속씨름단, 지역 대표 콘텐츠로 ‘도약’

국내 1호 민속씨름단 2017년 창단 제2전성기 선도 전용 훈련장·국립 민속씨름원 건립...‘K-씨름’거점 마련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영암 대표 콘텐츠로 발돋움하고 있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군민속씨름단은 국내 마지막 프로씨름단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고카리씨름단이 해체되자 군이 씨름단 선수들의 손을 잡고 2017년 1월 13일 ‘대한민국 제1호 민속씨름단’의 이름으로 영암군민속씨름단을 창단했다.

새 동지를 마련한 씨름단 선수들은, 영암군의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2017년 창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장사 66회, 전국제전 금메달

6회, 단체전 우승 10회, 총 82회 우승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해마다 늘어나는 운영비 등으로 우려곡절도 겪었으나 2022-2023년 6차례의 공론화위원회, 2차례의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민속씨름단의 존치가 결정됐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영암군민속씨름단도 영암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영암군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 노력이 대표적 예다. 씨름단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은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유튜브를 포함한 방송 출연 등 꾸준히 영암군을 알리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 데이’를 선보이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이끌고 있다. ‘잡채기’ 기술이 주특기인 씨름단 주장 최정만 장사는 이 기술을 써서 승리할 때마다 10만원씩 적립하는 ‘사랑의 잡채기’ 행사로 모은 기부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씨름단 팬을 중심으로 포털 네이버 밴드에 공식 서포터즈도 생겼다. 씨름단 선수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인기를 더해가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영암군은 여기에 씨름단을 대표하는 캐릭터와 굿즈도 개발·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지역 우수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영암 초·중·고와 연계해 방과 후 학습



영암군민속씨름단 소속 최정만 장사가 지난달 23일 열린 2024 민속씨름 평창 오대산전장사씨름대회에서 금강장사에 등록하며 민속씨름단의 명성을 높였다. <영암군 제공>

등 학교 체육에 씨름 프로그램 접목에 나선다. 지역 청소년들의 씨름 관심도를 높이고, 재능 있는 학생은 세한대학교 씨름단과 프로선수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역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용 씨름훈련장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최고 씨름단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영암군민이 언제나 씨름단의 훈련 장면을 관람할 수 있는 대민 접

점을 늘리기 위해서다.

가칭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구상도 마련 중이다. ‘대한민국 최강’ 영암군민속씨름단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씨름 품새와 교과 개발, 지도자·선수 육성 등 K-씨름 진흥의 지역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씨름 아카이브센터와 교육관, 체험관, 전용훈련장 등을 갖춘 국립민속씨름원 건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지 제공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민과 팬들은 좋은 성격에는 함께 기뻐하고, 부상과 부진에는 함께 아파하며 씨름단과 동고동락하고 있다”며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스포츠단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견인하는 전국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기자



해남군 삼산면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1천㎡ 시설하우스에서 김나은 농부가 애물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전남 최대 규모 청년창업농업인 육성”

81명 후계농 선발...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 지급

해남군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전남 최대 규모의 청년농업인 지원에 나섰다.

15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81명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을 선정, 청년들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의 창업 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 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예정자들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차 모집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전남 최대 규모로, 올해 1차 모집까지 총 2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해남군은 청년농업인 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 모델을 구축해 우수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청년농 유입 단계에서부터 기초 교육과 컨설팅, 정착지원, 성장에 이르는 지원 모델은 진입 유형과 단계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11개 사업에 41억6천100만 원을 투입해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개별농가 컨설팅·교육을 지원하고, 청

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연구동아리·농지확보 지원사업 등 청년 초기창업과 영농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영실습 임대농장 6개소를 조성해 청년들에게 3년간 임대하는 사업은 영농 기반과 재배 기술이 부족한 초보 청년농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해남에 정착하는 청년농업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며 “해남의 미래인 청년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백필용 기자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 연결 개통

무안군, 주룡나루-죽정천 자전거길 2.2km 연장 조성

무안군은 15일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을 ‘주룡나루-청호습터-죽정천’으로 연장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존 청호리 구간은 자전거 우선도로로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자전거와 차량간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됐다.

무안군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노선 변경을 추진해 국토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속 건의한 결과, 국비 72여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10월 착공(익산청 광주국토사무소), 2023년 12월 준공(영산강유역환경청)을 마치고, 데크로드 1.27km, 콘크리트 포장 875m의 자전거길을 연장(2.2km) 조성했다.

연결된 구간인 주룡나루-청호습터-죽정천 하루 자전거길 2.2km는 무안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았다.

무안군은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무안군 공무원들이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구간을 점검하고 있다. <무안=김상호기자>

단절구간이 연결됨으로써 상사바위 전설과 영산강의 멋진 전경 속에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시 몽탄대교-느리자-함평 동강교 구간도 자전거 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청렴 목표 구현’ 반부패·청렴 계획 추진

청렴 정책 추진단 운영...3대 전략·36개 실행 과제 마련

목포시는 15일 “‘청렴 목표’ 실현과 청렴도 우수기관의 제도약을 위해 ‘2024년 반부패·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고, 자체 내부 설문조사,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결과를 분석해 부패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반부패·청렴 추진기반 조성 ▲외부청렴도 향상 및 부패 취약분야 집중 관리 ▲내부청렴도 향상·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 3대 전략, 36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시는 주요 정책으로 ‘청렴 정책 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는 반부패·청렴 추진 기반 조성 및 고위직의 관심 및 참여도를 높여 청렴 활동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청렴 정책 추진단’의 목표는 목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청렴도 관련 부서 구성원이 청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역 사회 청렴 활동 리더인 ‘시민 감사관



목포시가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내외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초 간부공무원과 함께 청렴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목포시 제공>

제’를 운영하고, 지역 청렴문화 실천 캠페인 전개 등 반부패 청렴정책을 민·관이 합동해 추진한다.

시는 업무처리 중 불편사항·부패 행위 등을 파악하는 민원 만족도 조사 ‘청렴 알리톡’을 실시하고, 고충민원 처리실대를 분기별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M2혁신위원회’를 발족한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UCC 대회

내달 17일까지 모집...청소년 폭력 근절 목표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5일 “영광군교육지원청과 공동 주관하는 ‘2024년 영광군 청소년UCC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UCC대회는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영광군 청소년의 자율적

인 대의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청소년 폭력 근절·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안전한 학교, 행복한 고우 관계만들기,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17일까지

로,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팀전 혹은 개인전으로 2-3분 내외의 UCC동영상(드라마, 뮤직비디오, 연극영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이메일(ygl388@har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총 8개 팀을 수상할 예정이며, 관내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강진군 장미농장,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성 향상

식물 생육 최적 조건 자동 조절...노동력 절감 효과

강진군의 장미농장이 스마트팜 기술을 갖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노동력 절감이 나타났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장미의 시설환경제어 필요성에 대해 농업인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에 받아 올해 5농가, 15ha면적에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의해 식물 생육의 최적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비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다.

강진은 전남 장미 생산의 69%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장미 생산 선두 지역이다.

팜심화해영농법인을 중심으로 3농가, 15.3ha의 면적에서 연간 약 7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농업인 소득에도 도움이 커 지역 경제 활력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장미는 주로 연동 형태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겨울 저온시기를 지나 봄철에 좋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 나타나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

최영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다면 약천후 대응에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전문가 교육을 통해 장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

함평나비축제 친환경 행사로 만든다

함평군은 15일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친환경 축제 만들기 위해 행사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없애고 다회용기만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다회용기의 사용처는 축제장 내 모든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푸드트럭, 세계음식판매점 등 식·음료 판매소기 대상이다. 친환경적인 다회용기는 다양한 크기·형태로 제공되며, 보건소 위생팀과 협력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함평군은 축제 기간 다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다회용기 사용 후 행사장에 설치된 수거함에 직접 반환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방문객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함평=김연수기자